

해남군 취약계층 대상 무인라면카페

고향사랑지정 기부사업 5건 선정
취약가구 청소·방역 서비스 등
내년부터 모금 시작 지정 기부

“무인라면카페로 사랑 전하세요.”
해남군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지정기부사업 5건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해남이 친구라면 ▲사랑과 희망나눔 땅끝희망클린카 운영 ▲배움의 문을 여는 배움꾸러미 지원 ▲결혼이민자 디지털 자립·성장 프로젝트 ▲해남아이 함께기움 프로젝트 등 5건이다.

‘해남이 친구라면’ 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 라면카페를 운영하는 것이다.
급박한 고립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간단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목표 금액은 1300만원이다.
‘땅끝희망 클린카 운영’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청소와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고, ‘배움꾸러미 지원’은 성인 문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구 등 학습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IT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디지털 자립·성장 프로젝트’와 출산가정 중 의료비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해남아이 가치기움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모금이 시작될 예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희망자들이 지정기부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고독사 위기가구 조기발견을 위한 해남군 안심 애플리케이션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 ▲돌봄공동체 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청소년 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4건의 지정기부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과 해남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 모인 소중한 자산”이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 지원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첫 삽

67억원 투입 4층 30실 규모 건립

진도군이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으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진도군은 지난 14일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마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장애 시공을 기원하는 안전 지원제를 개최했다.
진도군의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은 총 67억원 (도비 24, 군비 20, 지방소멸대응

기금 23)을 투입해 지상 4층의 총 30실을 갖추게 된다.
기숙사는 청년인 간호복지 종사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32㎡ 크기의 원룸형 숙소로 구성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진도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가스안전공·MC에너지 사회공헌 협약

1억 투입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영암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MC에너지와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협약은 2027년까지 1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의 안전과 교육, 생활 여건 개선 활동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들은 가스 노후 배관 교체, 누설 차단 장치 설치 등 가스 보급 시설을 개선하고 냉장고·세탁기 보급, 단열 창호 시공·보강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영암군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가정 선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 보급·검수·점검을, MC에너지는 사업비와 생활 여건 개선을 각각 담당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세 기관의 견고한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암군민의 생활안전을 한 단계 더 높여겠다”라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료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4개월 균등 분할 가능

목포시가 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로 에너지 비용 저감에 나선다.
목포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방문 접수, 콜센터 전화, 전용 애플리케이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일반용(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및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요금 사용자는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용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생태와 문화가 만나는 신안 증도서 보물섬 함초축제

24~25일 태평염전 특별무대
버스킹·노래자랑·소금밭 체험

신안군이 24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 증도에서 ‘제2회 보물섬 함초축제’를 연다.
증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평염전·갯벌습지 보호지역 등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시대 무역선인 ‘신안 해저선’이 발굴된 장소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생태관광 명소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 내 특별무대에서 개최된다. 관람객들은 축제를 즐기면서 드넓은 갯벌과 약 11ha 규모의 염생식물 자생지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 체험형 축제로 증도만의 특별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미로운 선율의 색소폰 공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보물섬 노래자랑, 색소폰 버스킹과 즐기는 보물섬 스탬프 투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보물찾기 이벤트, 전통 소금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소금밭 체험 등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물섬 함초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제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가을 바다와 염전, 함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2028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총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완도군이 2028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8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해조류의 미래가치를 높여 해조류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꾀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형 박람회다. 수산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박람회는 2028년 4월21일부터 5월14일까지 완

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해조류, 생명의 기원에서 인류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해조류 이해관 등 7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제해조류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등도 개최한다.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블루카본으로서의 해조류 미래 비전 제시 ▲기후변화 대응 식품산업 모델 개발 ▲글로벌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형 박람회 ▲수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목표를 세웠다.
완도군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완도군은 지난 5월 ‘2028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군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행사 승인은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